

라트비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후보국

2026-2027

라트비아는 2025 년 선거에서 동유럽 그룹에 배정된 2026-2027 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후보로 입후보하였습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다면, 라트비아는 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후보로의 지명은 라트비아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원칙과 목적을 지지하고, 다자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명확히 반영합니다. 유엔의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라트비아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1991 년 독립을 회복하고 유엔에 가입한 이후, 유엔의 헌신적인 회원국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효과적인 다자주의, 국제 인권 및 인도주의법, 기본적 자유, 그리고 법치주의 원칙에 기반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분쟁 예방, 무력 충돌 시 민간인 보호, 그리고 **중재 및 평화 유지 역할**을 포함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유엔의 최우선 과제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라트비아는 유엔, 유럽연합(EU),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각종 임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및 국제 안보와 안정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군비 통제 및 국제 수출 통제 체제**를 통한 보다 높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해, 라트비아는 무기 무역 조약(ATT), 핵공급국그룹(NSG), 바세나르 체제(WA), 특정 재래식 무기금지협약(CCW), 유엔 소형무기행동계획(PoA) 등과 관련된 업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라트비아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확신합니다. 15 년 이상 공여국(donor

country)으로서 활동해 온 라트비아는 **개발 협력**, 사회·경제적 발전 및 빈곤 근절을 위한 투자, 기후 변화 대응 강화, 투명한 선의의 거버넌스 촉진, 그리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해 2030 의제 이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라트비아는 **국제적 행동**에 있어 제도적 회복력 강화, 교육 및 디지털 기술 발전, 그리고 여성과 청소년의 포괄적 참여 증진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가 글로벌 안보, 평화, 그리고 사회경제적 발전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라트비아는 **여성, 평화, 안보 의제**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는 것에는 우리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기후 변화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물 관련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포함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포함한 혁신**을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과 해양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트비아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생물 다양성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변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라트비아는 사회 내외와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팬데믹)은 국가와 사회의 회복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라트비아는 글로벌 백신 공유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양자적 관계를 통해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 백신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사실에 기반한 정보 및 언론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정보 문해력은 사회적 회복력과 응집력 증진은 물론, 그리고 사람과 기관 간의 신뢰 증진에 필수적입니다. 라트비아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에 대응하라는 유엔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이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해결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유엔 인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이사회**를 비롯한 주요 유엔 기구에서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라트비아는 사상 처음으로

유엔 여성 지위위원회와 평화구축위원회에 선출된 바 있습니다. 라트비아 전문가들의 뛰어난 역량은 다양한 유엔 기구에서의 성공적인 선출을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에는 **IPCC 제 2 실무그룹 부의장직, 유엔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 예방을 위한 소위원회(SPT), 발트 3 국 최초로 국제법위원회(ILC) 위원 선출, 그리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등이 포함됩니다. 다자간 협력, 파트너십 및 특정 문제에 대한 참여는 다양한 유엔 '친선 그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책임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범지역적그룹(ACT Group)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라트비아는 유엔 정규 예산과 평화유지 예산에 대한 재정 기여가 전액 제때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UNDP, UN OCHA, UNHCR, OHCHR, PBF, UN WOMEN, UNICEF, UNESCO, UNRWA, OSRSG-SVC, WFP, WHO, CERF 기후 행동 계좌, SIDS4 고위급 회의, ICC 피해자 신탁 기금 등 다양한 유엔 전문 기관 및 기금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다면, 라트비아는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기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보다 대표적이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만들어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도전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관점에 대해 개방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접근할 것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업무에 건설적이고 투명하며 포괄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것입니다.